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200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9, No. 2. 2008

주요용어 : 음란물, 안전한 성, 태도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 안전한 성행위 의도 비교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이 종 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의식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전 무분별한 음란물 접촉으로 성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자극되어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성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하여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원조교제와 같은 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인공유산과 함께 임질, 매독, 에이즈 등 성병 감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이나 성도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을 묘사한 매체를 무방비적으로 접하게 되는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인쇄매체에 의한 음란물 접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영상매체의 발달로 영화, 비디오, CD,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음란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성적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성적인 성장이 왕성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음란물의 범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Kim, 1998). 청소년들은 이러한 음란물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접촉하게 되며 성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음란물에 접촉함으로써 왜곡된 성지식과 성태도가 형성되며(Lee, 2002; Kim, Lee, & Jung, 2001) 모방 성관계나 무분별한 성관계로 이어져 안전한 성생활이 위협받게 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첫 성교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22.3%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Lee, 2006), 2007년 질병관리 본부에서 보고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하루 2.1명꼴로 새로 발견되고 있으며 에이즈 요인의 98.7%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고 이중 10대의 감염률이 1.7%, 20대가 18.1%에 달하고 있다(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8). 이러한 통계 결과는 발견 당시의 연령이므로 에이즈의 잠복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감염 시기는 이보다 몇 년 빠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10대 청소년들이 성병의 위험지대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기의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음란물 접촉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란물 접촉실태(Yom, Yun, & Lee, 2002; Kim et al., 2001; Kim & Woo, 2001), 성교육이 음란물 접촉에 미치는 효과(Woo, Kim, & Park, 2001),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지식, 태도의 차이(Kim et al., 2001)를 보는 연구는 있었으나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지식, 태도 뿐 아니라 성경험과 안전한 성행위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yunglee@dankook.ac.kr)
투고일: 2008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3일

의도를 통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고등학생은 청소년 중기에 속하며 성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비교해 보려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비교해 보아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관련 특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3)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경험의 차이를 알아본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비교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지역에 소재하는 1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와 1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편의표집하여 각 학교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 386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6%) 이중 불완전한 응답을 한 28명을 제외하고 356부 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중 지난 6개월간 음란 CD, 비디오, 인터넷, 잡지, 음란 전화에 대해 1달에 한번 이상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자를 음란물 접촉자로 그렇지 않은 자를 비접촉자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 음란물 접촉자는 160명이었고 비접촉자는 196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성 관련 특성 6문항, 성에 대한 지식 25문항, 태도 20문항, 성경험 4문항, 안전한 성행위 의도 5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고등학교 보건교사 1명과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보았고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해가 안 되는 어휘는 수정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으로 구하였다.

1) 성지식

본 연구에서는 Nam(1999)의 성지식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생식생리 13문항, 성생리 5문항, 성병 5문항, 피임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맞는 응답을 한 경우는 1점, 틀린 응답을 한 경우는 0점을 주었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총 25문항의 점수를 합한 값을 다시 총 문항수로 나누어 얻은 평균값을 지식 점수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8이였다.

2) 성태도

성태도란 성에 대하여 개방적인 성향을 지니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느냐를 가름하는 잣대(Kim et al., 2001)로서 본 연구에서는 Park(2002)의 성태도 도구를 이용하여 순결 5문항, 성행동 7문항, 성생리 5문항, 인공유산 3문항으로 구성된 20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 까지 점수화 하였고 보수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 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 다시 문항수로 나눈 값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79였다.

3) 성 경험

성행위와 관련된 경험의 정도로(Choi & Ha, 2004) 이성 친구 여부 1문항,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 정도 1문항, 피임경험 1문항, 콘돔 사용 경험 1문항으로 총 4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신체적 접촉 정도는 여러 개를 응답한 경우 그중 가장 접촉정도가 강한 것을 응답으로 간주하였으며 피임경험과 콘돔사용 경험은 이성친구와의 신체적 접촉 정도에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자 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안전한 성행위 의도

본 연구에서는 Dilorio, Parsons, Lehr, Adame과 Carlone(1992)과 Naomi(1993) 등의 문헌을 토대로 앞으로 성관계시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이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의도를 측정한 점수로 5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 다시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구하였다. 신뢰도는 .73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23일 까지 충남에 소재한 남녀 고등학교 각각 한 곳을 편의 표집 하였다. 해당 고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학교의 승인을 얻은 후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담임교사는 설문지 배포전 학생들에게 본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이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 성경험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간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한 셀이 5가 안되는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 값을 구하였다.
2)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두 그룹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결과는 일개지역 고등학교를 편의 표집 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 하여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자가 전체의 52.0%로 여자 보다 다소 많았으며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56.2%를 차지하였고, 학교성적은 중 정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는 집에서 다니는 경우가 전체의 94.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생존 여부에서는 두 분 다 생존해 있는 경우가 91.9%였다. 음란물 접촉자의 경우 주로 접촉하는 음란물의 종류를 보면 인터넷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비디오(29.5%), 잡지(19.1%), CD(9.3%)의 순이었다.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비교해 보면 접촉자의 경우 남자가 78.1%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비접촉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69.4%를 차지하여 성별은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79.67. p=.000). 그러나 학년, 종교, 학교성적, 주거지, 부모생존 여부에 있어서는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2. 성관련 특성의 차이

성관련 특성<Table 1>을 보면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자의 65.2%가 성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성에 대한 지식 출처는 친구나 동료로 부터의 정보획득이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각각 31.9%, 4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란물 접촉자(31.2%)는 비접촉자(5.1%) 보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획득이 많았으며 음란물 비접촉자는 접촉자 보다 전문서적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48.0, p=.000). 성에 대한 교육요구를 보면 남녀 성심리가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에서 각각 39.4%, 5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란물접촉자는 성행위기법에 대한 지식요구(25.6%)가 비접촉자(8.7%) 보다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임(13.8%)과 성병(8.1%)의 순이었으며 비접촉자는 피임(15.3%), 임신(9.2%), 성병(8.7%), 성행위 기법(8.7%)의 순이었으며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간에 교육요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able 1〉 Sex-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Description	Total (N=356) n(%)	Exposure (n=160) n(%)	Non exposure (n=196) n(%)	χ^2	p
Experience of sex education	Yes	232(65.2)	111(69.4)	121(61.7)	2.27	.132
	No	124(34.8)	49(30.6)	75(38.3)		
Source of sex information	Friends, colleague	134(37.6)	51(31.9)	83(42.4)	48.0*	.000
	Mass media	48(13.5)	17(10.6)	31(15.8)		
	Internet	60(16.9)	50(31.2)	10(5.1)		
	Video pornography	10(2.8)	7(4.4)	3(1.5)		
	Class & books	104(29.2)	35(21.9)	69(35.2)		
Education need	Psychosexual	166(46.6)	63(39.4)	103(52.6)	23.53*	.001
	Contraceptive method	52(14.6)	22(13.8)	30(15.3)		
	Pregnancy	27(7.6)	9(5.6)	18(9.2)		
	Sexual behavior technique	58(16.3)	41(25.6)	17(8.7)		
	Reproduction physiology	15(4.2)	6(3.8)	9(4.6)		
	Venereal disease	30(8.4)	13(8.1)	17(8.7)		
	Masturbation	8(2.2)	6(3.8)	2 (1.0)		
Conversation with parents	Never	219(61.5)	110(68.8)	109(55.6)	7.28	.026
	Sometimes	110(30.9)	38(23.8)	72(36.7)		
	Often	27(7.6)	12(7.5)	15(7.7)		
Sexual problem solving	Discussed with colleagues	170(47.8)	58(42.5)	102(52.0)	7.14	.028
	Internet	62(17.4)	37(23.1)	25(12.8)		
	Professional counseling	124(34.8)	55(34.4)	69(36.2)		
Experience of sexual impulse	Yes	162(45.5)	107(66.9)	55(28.1)	53.52	.000
	No	194(54.5)	53(33.1)	141(71.9)		

* Fisher's exact test

를 보였다(χ^2=23.53, p=.001). 부모와 성관련 대화정도를 보면 전혀 안하는 경우가 전체의 61.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자주 대화하는 경우는 7.6%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그룹별로 보면 음란물 접촉자는 전혀 부모와 대화를 안하는 경우(68.8%)가 비접촉자(55.6%) 보다 많았으며 가끔이라도 하는 경우는 비접촉자(36.7%)가 접촉자(23.8%)에 비해 많았고 이는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7.28, p=.026). 성문제가 있을시 해결 방법으로는 친구나 동료와 의논하는 경우는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각각 42.5%, 5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란물 접촉자의 경우에는 성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23.1%)하는 경우가 비접촉자(12.8%) 보다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7.14, p=.028).

성충동 경험에 있어서는 접촉자의 66.9%가 성충동을 경험한 반면 비접촉자는 28.1%만이 성충동을 경험하였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χ^2=53.52, p=.000).

3.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지식과 태도,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

성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Table 2〉 전체 평균은 .70±.12 이었으며 지식이 가장 높은 영역은 성생리(.87±.19)였고 지식정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피임(.57±.35)이였으며 그 다음은 성병(.65±.19) 이였다. 음란물 접촉자의 총 지식정도(.71±.13)가 비접촉자의 지식(.69±.12)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근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39, p=.167). 하부영역에서는 음란물접촉자가 비접촉자보다 생식생리 영역에서의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p<.05) 피임 영역에서는 음란물 접촉자가 비접촉자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성생리와 성병에 대한 지식은 비접촉자가 접촉자 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가 근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태도에 있어서는〈Table 2〉 전체 평균 2.86±.55로 중간 값인 2.5점보다 조금 높아 다소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룹별로 보면 음란물 접촉자들은 비접촉자들 보다 전체 태도

〈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between Two Groups N=356

Variables	Description	Total M±SD	Exposure M±SD	Non exposure M±SD	t	p
Knowledge of sex	Physiology	.87±.19	.85±.19	.88±.19	-1.50	.134
	Venereal disease	.65±.19	.64± 20	.66±.19	-.84	.403
	Contraceptive method	.57±.35	.61±.34	.54±.35	1.92	.055
	Reproductive physiology	.70±.15	.73±.15	.68±.16	3.28	.001
	Subtotal	.70±.12	.71±.13	.69±.12	1.39	.167
Attitude toward sex	Virginal purity	2.68±.84	2.88±.85	2.51±.78	4.20	.000
	Sexual behavior	2.99±.57	3.10±.64	2.90±.50	3.19	.002
	Physiology	2.83±.67	2.81±.74	2.84±.61	-1.13	.249
	Induced abortion	2.94±.92	3.00±.96	2.89±.89	1.20	.232
	Subtotal	2.86±.55	2.94±.63	2.78±.46	2.64	.009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Come to an agreement to use condom	3.33±.68	3.18±.71	3.45±.64	3.83	.000
	Not with multiple sexual partner	3.38±.76	3.16±.81	3.57±.66	5.33	.000
	Not with suspicious person having V.D	3.73±.70	3.43±.63	3.98±.65	8.21	.000
	Use of condom	2.94±.15	2.74±.71	3.11±.74	4.85	.000
	Avoidance of body fluids	2.91±.78	2.83±.79	2.98±.77	1.79	.074
	Subtotal	3.26±.51	3.18±.71	3.45±.64	3.83	.000

영역에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t=2.64, p=.009) 하부 영역에서는 순결, 성행동 영역에 있어 음란물 접촉자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성생리와 인공유산 영역은 그 차이가 근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있어서는〈Table 2〉 음란물 비접촉자가 음란물 접촉자 보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t=3.83, p=.000) 항목별로 보면 성관계전 콘돔사용에 대해 의논하겠다(t=3.83, p=.000), 성병감염이 우려되는 자와의 성행위는 하지 않겠다(t=8.21, p=.000), 콘돔사용 하겠다(t=4.85, p=.000)는 항목에 있어 비접촉자가 접촉자 보다 높은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체액접촉 안하겠다는 항목에 있어서는 접촉자와 비접촉자 모두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근소하여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Sexual Experiences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Description	Total (N=356) n(%)	Exposure (n=160) n(%)	Non exposure (n=196) n(%)	x^2	p
Heterosexual friend	No	126(35.4)	47(29.4)	79(40.3)	3.86	.057
	Yes	230(64.6)	113(70.6)	117(60.6)		
	Subtotal	356(100.0)	160(100.0)	96(100.0)		
Physical contact level	None	92(40.0)	35(31.0)	57(48.7)	16.80	.001
	Caress	51(22.2)	26(23.0)	25(21.4)		
	Holding hands	59(25.7)	29(25.7)	30(25.6)		
	Sexual intercourse	28(12.2)	23(20.4)	5(4.3)		
	Subtotal	230(100.0)	113(100.0)	117(100.0)		
Experience of contraception	No	17(60.7)	15(65.2)	2(40.0)	2.03*	.290
	Yes	11(59.3)	8(34.7)	3(60.0)		
	Subtotal	28(100.0)	23(100.0)	8(100.0)		
Condom use	No	19(67.9)	17(73.9)	2(40.0)	1.07*	.353
	Yes	9(32.1)	6(26.1)	3(60.0)		
	Subtotal	28(100.0)	23(100.0)	5(100.0)		

* Fisher's exact test

4. 성경험

성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64.6%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음란물 접촉자들이 비접촉자 보다 이성 친구를 가진 비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성친구를 가진 230명의 신체 접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0%였으며 손잡기 25.7%, 진한 애무 22.2%, 성관계가 12.2%를 차지하였으며 그룹별로 보면 음란물접촉자의 경우는 성관계를 한 경우가 20.4%로 비접촉자 4.3%보다 많았으며 비접촉자 중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던 비율(48.7%)이 음란물접촉자(31.0%) 보다 많아 그룹 간에 신체 접촉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6.80$, $p=.001$). 피임경험과 콘돔사용 경험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자 만이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피임경험에 있어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자의 60.7%가 피임을 한 적이 없었고, 67.9%가 콘돔사용 경험이 없었으며 이는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Ⅳ. 논 의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음란물 접촉은 모방행동이나 성적 비행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청소년의 안전한 성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44.9%가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었고 접촉한 음란물의 종류로는 인터넷이 3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디오 29.5%, 잡지 19.1%의 순이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을 조사한 Sohn(2003)의 연구에서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컴퓨터나 CD를 통한 음란물 접촉이 가장 많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고(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Korea, 2007) 무단 음란 사이트들이 많아 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의건 타의건 음란물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볼 것과 보지 않아야 할 것 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음란물에 대한 판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성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전체 70%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2000)의 연구에서 50%의 정답률을 보인 것 보다는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Kang(2002)의 연구에서 76.9%의 정답률을 보였던 것 보다는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음란물 접촉자는 비접촉자에 비해 성에 대한 전체 지식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가 근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하부 영역 중 생식생리에 대한 지식만이 비접촉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1)의 연구에서 컴퓨터 음란물 접촉자가 비접촉자 보다 성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 모두에서 성생리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았고 피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성병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교육요구에 있어서도 음란물 접촉자의 39.4%, 비접촉자의 52.6%가 성심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음란물 접촉자의 경우는 성행위기법, 피임법, 성병의 순으로 교육 요구가 높았으며 비접촉자의 경우는 피임, 임신, 성행위기법, 성병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이성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원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피임과 성병에 대한 정보를 원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대부분 성생리 중심의 교육이어서 피임이나 성병과 같은 교육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에 대해 음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현실에서 학교에서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경우 학생들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임 교육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10대들의 성병 감염율과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피임과 성병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실제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리라 본다.

성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음란물 접촉자의 69.4%, 비접촉자의 61.7%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001)의 연구에서 88.8%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들이 입시과열로 인해 수능과목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입시와 무관한 성교육 시간은 소홀히 했거나, 교육을 받았더라도 비효과적이어서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도 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지식의 출처를 보면 친구나 동료로부터 지식을 얻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음란물 접촉자의 31.9%, 비접촉자의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란물 접촉자는 성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경우가 31.2%로 비접촉자(5.1%)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접촉자들은 강의나 서적을 통하여 얻는 경우가 35.2%로 접촉자(21.9%)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 접촉자들은 강의나 전문서적보다는 인터넷과 같은 경로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얻고 있어 연령에 부적합 하거나 왜곡된 성지식을 무차별하게 습득할 가능성이 있어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나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란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성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문제가 있을시 해결방법으로는 친구와 의논하는 경우가 음란물접촉자(42.5%)와 비접촉자(52.0%)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 모두 7%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모와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적절하고 솔직한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에는 장래 건전한 성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녀들과 성 관련 대화를 회피하거나 권위적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문제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녀와의 성 대화 전략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한 많은 고민을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또래집단을 활용한 역할극이나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성충동 경험에 있어서는 음란물 접촉자의 66.9%가 성충동을 느낀다고 한 반면 비접촉자는 71.9%가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음란물 접촉자의 성충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Yom 등(2002)의 연구에서는 음란물 시청 후 모방 충동을 느끼는지 물어 보았을 때 약 20%의 대상자가 모방충동을 느낀다고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성충동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란물이 갈수록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성충동은 무방비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을 위협 할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성충동이 있을시 이를 적절하게 방출, 억압,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안전한 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태도에 있어서는 음란물접촉자(평균 2.94)는 비접촉자(평균 2.77)보다 전체 태도점수가 높아 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란물 접촉자들은 순결과 성행동 영역에서 비접촉자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01)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컴퓨터 음란물에 노출된 대상자가 비노출 대상자에 비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혼전성교에 대해 허용 적이었다고 했으며 Sohn(2003)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란물을 본적이 있는 경우가 본 적이 없는 경우 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Lee(2002)는 음란물의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성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음란물 접촉은 청소년기에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이러한 태도는 아무 죄의식 없이 혼전 성관계나 성적 탈선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Lee & Im, 2001) 이들에게 바람직한 성관념을 확립시키고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험에 있어서는 음란물 접촉자가 비접촉자보다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한 비율이 다소 많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성 친구를 가진 자 중 신체적 접촉 정도를 보면 음란물 접촉자는 성관계 경험자가 20.4%로 비접촉자 4.3%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이성교제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자는 음란물 비접촉자가 48.7%로 음란물 접촉자 31.0% 보다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신체적 접촉 정도에 있어서는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 모두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성관계 비율은 이보다 높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Gang(2000)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컴퓨터 음란물에 접촉한 학생이 성과 관련된 행동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 Sohn(2003)도 여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란물을 많이 접촉한 집단에서 성행동의 점수가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음란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 관계와 바람직한 성역할, 성윤리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관계 경험자중 음란물 접촉자의 65.2%가 피임경험이 없었고 73.9%가 콘돔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in(2006)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79.7%, 여학생의 88.5%가 첫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Yamamoto(2006)가 978명의 일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경험을 한 학생의 73%가 성교 시 콘돔을 사용했다고 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교시 콘돔 사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있어서도 음란물 접촉자가 비접촉자에 비해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항목과 체액에 접촉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있어 가장 낮은 의도를 보여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성병 및 에이즈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성병과 에이즈의 위험지대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는 에이즈 및 여러 종류의 성병 감염을 초래하며 에이즈 치료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콘돔사용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므로 이러한 성병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돔 사용을 비롯한 '안전한 성'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하리라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 치료적 차원의 성교육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늘어나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 실시가 활발해지기는 했지만 종래의 전통적인 강의실에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이러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매체를 통한 음란물 접촉을 무조건 차단하거나 막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매체를 역이용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나 청소년프로그램에 이러한 성교육 내용을 삽입시키거나 청소년들이 자주 접촉하는 사이트에 팝업창으로 성병, 피임, 콘돔 사용 등에 대해 홍보 메시지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인터넷을 역이용하여 인터넷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인터넷 상에 성 상담 전문가에 의한 성상담소를 개설하여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익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 학생 중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비교해 보아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23일 까지 35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최근 6개월 동안 1개월에 한번 이상 음란물에 접촉한 대상자를 음란물접촉자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음란물 비접촉자로 분류하여 음란물 접촉자 160명과 비접촉자 196명 총 35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음란물접촉자와 비접촉자 간에 전체 성에 대한 지식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특히 두 그룹 모두에서 성병과 피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에 대한 태도는 음란물 접촉자가 비접촉자에 비해 개방적이었으며 특히 성행동과 순결에 있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경험에 있어서는 음란물접촉자가 비접촉자 보다 성관계 경험이 많았으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음란물 접촉자들은 성에 대한 태도가 더 개방적이고 성충동이나 성교경험이 더 많으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낮으므로 청소년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성병이나 피임법 같은 실제적인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2. 음란물 접촉자들의 음란물 접촉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역이용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접촉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텔레비전 드라마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성에 대한 교육을 삽입하도록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3. 음란물 접촉자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나 고민 상담을 또래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또래 집단을 이용한 성교육 프로

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하리라 본다.

References

Cho, S. H. (2001).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 to sexuality in Boys'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318-330.

Dilorio, C., Parsons, M., Lehr, S., Adame, D., & Carlone, J. (1992). Measurement of safe sex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Nursing Research, 41*(4), 203-208.

Gang, M. S. (2000). *A status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watching sexually obscence pictures on the compu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im, J. N., & Woo, H. J.(2001). A cross sectional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access to computer online pornograph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1), 150-167.

Kang, H. S. (2002). *A thesis on sex knowledge, sexual behavior, and point of views about sex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im, H. W., & Lee, H. G. (2002). Analysis on sexual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1), 247-272.

Kim, T. K. (1998). *A study of the effect of computer pornography on learning concentration and sexual response of the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im, Y. H., Lee, H. Z., & Jung, H. M. (2001). A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on the exposure to PC pornography of the middle school boys in Busa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7*(1), 62-73.

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8). The statistics for AIDS in Korea. *Red Ribbon, 78*(1), 28-29.

Lee, H. K. (2006). Report about the health status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49*(12), 1267-1274.

Lee, K. O., & Im, M. L. (2001). A research study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s sex in some parts of kangwon province. *Journal of Nursing Science, 13*(1), 17-30.

Lee, M. H. (2002). *Sexual attitude and knowledge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ddicted youth to obscene materi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yang University, Anyang.

Min, Y. S. (2006). *A study on sex consciousness reality and sex education necess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Asan.

Moon, I. O. (2000). Co-Ed high school sexual educ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6*(4), 414-425.

Nam, M. H. (1999).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0*(1), 239-251.

Naomi (1993). *Botswana female youth: perception of sexuality and risk-tak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Korea (2007, Feb.1). Retrieved from Mar. 8, 2008 from http://isis.nida.or.kr.

Park, M. S.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toward sex and needs about sex educ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Sohn, J. N.(2003). Study on the sexual attitudes type and sexual experiences as regards risk behaviors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2),113-127.

Woo, H. J., Kim, J. N., & Park, K. M. (2001). Effect of sex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access tc the obscene online computer and video film cont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3), 795-814.

Yamamoto, K. (2006). Cross-sectional study on attitudes toward sex and sexual behavior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hysiological Anthropology, 5*(3),221-227.

Yom, Y. H., Yun, Y. S., & Lee, K. E. (2002). Exposure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pornograph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1), 137-146.

- Abstract -

Comparison of Sexual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s and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between Pornography Exposures and Non-Exposures

*Lee, Jong Ky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knowledge, attitude, sexual experiences, and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between pornography exposures and non-exposur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96 non-exposures and 160 exposur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hu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1 to Dec. 23, 2005.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ornography exposures had more liberal attitudes, more sexual intercourses in sexual experiences, and less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than the pornography non-exposur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between the pornography exposures and non-exposures. Especially the score of knowledge related to contraceptive methods and venereal diseases was relatively low in both group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pornography can affect sexual attitudes, sexual experiences, and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An effective 'safe sex' education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for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for pornography exposures.

Key words : Pornography, Safe Sex, Attitud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